

복지
영성

복지영성

성경으로 사회사업을 배우고 성찰하며 다듬어 갑니다.

2023년 7월 30일

원고를 <http://welfare.or.kr>에 한글과 PDF 파일로 공유합니다.

한글 개역개정 성경의 저작권은 대한성서공회에 있습니다.

서문	4	5.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63
동기	7	6.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65
1. 하나님의 공의	8	7. 근본책	72
2. 예수님께서 하신 일	14	8. 단순한 실천	73
3.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	16	자세	74
4.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	19	1. 성실	74
5. 장래에 대비하는 일	20	2. 겸손	76
6. 수지맞는 일	21	3. 존중	78
7.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	22	4. 사랑	82
8. 사명	23	5. 보답	86
9. 계명	24	6. 권리	88
10. 사회사업의 가치	27	7. 하향	91
복지 원형	30	8. 개척	93
방법	33	원칙과 변통	95
1.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34	1. 기준	95
2. 하나님께 구합니다.	41	2. 사람에 따라	99
3. 하나님께 맡깁니다.	51	3. 경우에 따라	100
		4. 변통	102

욕구	103
평안	106
1. 때때로 쉽니다.	106
2. 평안히 잡니다.	107
3. 낙을 누립니다.	108
4.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110
5. 선택과 한계	112
시험 역경	117
1. 성찰합니다.	118
2. 감사합니다.	119
3. 찬양합니다.	121
4. 기뻐합니다.	122
5. 훈련으로 여깁니다.	123
6. 기대합니다.	124
7.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25
8. 하나님께 피합니다.	127
9. 기다립니다.	129
10. 말씀을 행사합니다.	130
11.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132
12. 선지자들을 본받습니다. ..	134
13. 다른 길을 찾아봅니다.	144
14. 받아들입니다.	145
15. 죽으면 죽으리라 합니다. ·	146
16. 사람이 힘들게 할 때	148
17. 떠나야 하는가?	157
18. 과거가 발목을 잡을 때	159
19. 남이 어려움 당할 때	160
평가	162
1. 기준	162
2. 칭찬	164
3. 자랑	166
4. 물리나기	172
5. 내려놓기	173
6. 영광을 하나님께	174

언어	178
1. 말의 원천	178
2. 잘 듣습니다.	181
3. 때가 된 후에 말합니다.	183
4. 말을 아깁니다.	184
5. 성내지 않습니다.	185
6. 강의와 상담	186
7. 축복	190
8. 비판 책망	192
9. 험담	198
10. 비밀	199
11. 의혹, 소문	200
12. 원망, 불평	201
13. 약속	202
14. 기타	206
15. 말실수	207
재원	208
1. 하나님	208
2. 재원의 정당성	210
3. 물질관	214
복	220
1. 복, 복지	220
2. 행복	221
복지 영성	222

서문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약자의 복지를 이루는 일, 약자도 살 만하게 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게 하는 일입니다.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을 살리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사회사업에 가까운 일은 ‘선한 일’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 학대받는 사람이나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는 일, 주린 사람을 먹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보는 일, 환난 당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가족 친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요컨대 선한 일은 약자를 돕는 일이고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회사업은 이런 일을 직접 하거나 사람들이 하게 돕습니다. 사람들이 약자를 돕는 일과 서로 사랑하기를 잘하게 주선하는 일이 많습니다.

선한 일, 선한 사업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을 잘하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훈련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 성경으로써 사회사업을 배우고 성찰하며 다듬어 갑니다.

딤후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온전히 갖추게 하려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이 말씀이 사회사업에 절실히 와 닿습니다.1)

1) 성경의 첫째 목적은 구원입니다.

요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딤후3:15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런데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합니다.

엡2: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딤후2: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딤후3:7~8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신학에는 문외한이고 따로 참고한 책도 없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며¹⁾ 문맥을 살피고 관주와 여러 번역본을 참조했습니다.²⁾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으니 읽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바랍니다.³⁾

1) 요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일을 잘하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여 사회사업 잘하게 해 주십시오.

2) 여기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그로써 방법을 찾거나 힘을 얻거나 그와 같기를 바라거나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대목이 많습니다.

다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벧전1:20) 조심 또 조심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대목에 인용해도 될지, 이렇게 참고하거나 이렇게 적용해도 될지, 이리저리 따져 보고 헤아리고 살폈습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인용 성구에 관한 설명이나 적용 이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3) 히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살전2:13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55:10~11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서서 소출이 나게 하며 씨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인용한 성경 말씀도 이와 같이 읽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동기

마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듯 사11:6~7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틀림없이 약자
의 복지가 이루어지는 사회,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
회일 겁니다.

약자의 복지, 약자와의 공생, 이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공의이고 인간
사회에 요구하시는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사업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곧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약자의 복지가 물같이 흐르고 약자를 위한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 이런 사회에 대한 의식과 희망이 사회사업 동기입
니다.¹⁾

1) 사회사업 운동의 동기도 이러합니다.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생각하자, 사람이 사람답게 복지를 이루게 돕고 사회
가 사람 사는 사회 같게 하자, 이렇게 사회사업하자는 운동, 세계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사회사업가들이 지식 정보 경험 지혜를 나누며 뜻있게 바르게 사회사업 잘
하게 돕는 일, 사회사업을 근본으로부터 탐구하고 성찰하여 글을 쓰고 나누
는 일, 세계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1. 하나님의 공의

출22:21~24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¹⁾

출22:25~27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출23:9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레19:9~10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19:13~14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머슴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1) 시10:14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시10:18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시68:5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레25:35~37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¹⁾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 주지 말라.

신10:17~19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²⁾

신14:28~29 매 삼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15:7~1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나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

1) 시68:6, 10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2) 시103:6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시140:12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시146:6~9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느도다.

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15:11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신15:12~14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신16:10~11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신24:10~13 네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 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신24:14~15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신24:17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신24:19~21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떼 후에 그 가지들을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떼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라.

신26:12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신27:18~19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사1:16~17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사10:2~3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별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사58:6~7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혈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58:9~11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떼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렘22:3~5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겔16:49~50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암5:24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 어다.¹⁾

1) 암5:7 정의를 쓴 쪽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11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12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15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 거듭되는 명령과 약속, 엄중한 경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관심사인지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약자의 복지를 이루는 일, 약자도 살 만하게 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게 하는 일, 이는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요구하시는 정의임이 분명합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정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특히 빈부 격차와 불평등이 심해지는 시대, 약자를 소외시키고 힘들게 하는 세상에 더욱 절실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 사회사업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입니다.¹⁾

1)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라야 '사람 사는 사회'라 할 수 있고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약자와의 공생성, 이는 정의로운 사회 '사회정의'의 본질입니다.

약자도 살 만하게 하고 약자와 더불어 살게 하는 일, 사회사업은 곧 약자를 위해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시106:3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잠21:3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미6:8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2.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대부분 약자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1) 예수님께서 당신의 행적을 친히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11:2~5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것이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2) 예언된 예수님의 사명이 이리했습니다.

눅4:17~19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인용사 61:1~2)

3) 지켜본 제자들의 증언이 이리했습니다.

행10:36~39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4) 예수님의 이 일은 곧 정의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일이었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42:1~7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고향을 양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5) 열두 제자를 내보내실 때 명하신 일이 이릅니다.

마10:7~8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¹⁾

6) 최후 만찬에서 주신 새 계명도 이릅니다.

요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부탁한 일도 이릅니다.

갈2:9~10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계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레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한 가지)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3.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1)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히13:16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¹⁾

2) 주를 공경하는 행위

잠14:31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3) 경건한 삶

약1: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²⁾

1) 히11:5~6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회사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2) 행10:1~2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 지혜의 증거

약3:13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전7:4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5) 선한 행실의 증거

딤후5:10 (명부에 올릴 과부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주를 공경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선한 행실로 인정받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의 공통 속성은 바로 '선행' 곧 약자를 돕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읍의 행실이 이와 같았습니다.

읍1:1 우스 땅에 읍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읍29:11~17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 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읍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 변론하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읍31:13~14, 16~22, 32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랴 대답하겠느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체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 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4.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

마6:19~21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19:21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눅12:33~34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남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물이 소용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땅의 재물로 인한 수고와 염려는 덜 수 있겠습니다. 세금 무서워할 필요 없고, 쓰지 못하고 죽음을 애석해할 필요 없고, 유산 다툼 걱정할 필요 없겠습니다. 도둑맞지 않을까, 녹슬거나 좀먹지 않을까, 허비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늘의 보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마음도 그곳에 있게 할 만큼 매력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 아직은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땅에 재물을 쌓아 두지 않으니 세상에 마음 뺏길 일은 멀어질 테고, 땅에 의지할 재물이 없어 하늘 아버지께 마음 두고 살 테니, 이것이 곧 참된 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5. 장래에 대비하는 일

1)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몰라 보험을 듭니다. 재앙의 날에 건져 주고 복도 받게 하는 보험, 혜택이 자손에게까지 미치는 보험…

전11:1~2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시41:1~2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시37:25~26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¹⁾

2) 이 보험을 들어 놓지 않으면?

잠21:13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28:27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체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²⁾

부르짖을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돕지 않고 나누지 않은 일이 수치와 회한으로 남을 터이니 이것이 곧 벌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자녀를 위한 3대 보험, 3대 유산 : 하나님 사랑, 부부 사랑, 이웃 사랑

2) 약2:13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딤후6:18~19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6. 수지맞는 일

잠11:24~25 흠여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
요 남을 운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운택하여지리라.

잠19:17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
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눅6: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
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¹⁾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 장래에 대비하는 일, 수지맞는 일...

사회사업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잘 하고 잘하게 주선하고 거들어 주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늘에 보물을 쌓게 돕는 일이고, 장래에 대비하
게 돕는 일이며, 수지맞게 돕는 일입니다.

1)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
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새번역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킹제임스 흠정역

한편, 이 대목이 어떤 말씀들 사이에 있는지 그 맥락을 헤아려 읽는다면?

눅6:37~38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
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
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7.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

사회사업을 좋아합니다. 사회사업이 즐겁습니다.

전3:12~13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3:22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전5:18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사회사업가는 자기 일 곧 ‘사회사업’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사회사업가가 사회사업으로써 낙을 누림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¹⁾

1) 결국 자기만족을 위한 일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하여.

결국 자기만족에 닿지 않는 행위가 있을까요? 설사 이익을 바라고 도울지라도 탐욕이 아니라면 너무 각박하게 몰아붙이지 않음이 좋겠습니다. 이기적 목적으로 사회사업할지라도 그로써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는 기뻐할 일인지도 모릅니다.

빌1:15~18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투므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걸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8. 사명

사회사업가에게 사회사업은 명령받은 일, 부득불 할 일, 사명입니다.

눅17:9~10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고전9:16~17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¹⁾

주께서 맡기신 직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충성스럽게 받들어야 할 소명입니다.

딤후1:12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고전4:2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벧전4: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1) '성령에 매여' 행하는 일입니다.

행20:22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9. 계명

1) 율법의 강령

마22:37~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2) 율법의 완성

롬13:8~10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¹⁾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3) 새 계명

요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²⁾

요15: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일3:17~18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1) 갈5:14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2) 요13:14~15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도와 줄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
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4:7~1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
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
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
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
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
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
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
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일4:20~21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 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
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롬15:1~2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
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갈6: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빌2:1~4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
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
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딤후5:4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딤후5: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히13:1~3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¹⁾

사회사업은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을 살리는 일 곧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돕는 일입니다.²⁾

1)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회사업가는 사람들이 이 계명을 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사회사업가에게도 숙제입니다. 사회사업가라서 더욱 그러합니다.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마음에 담아 둡니다. 사회사업 안에서 또는 사회사업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은혜로, 아주 조금이나마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2) 이웃 사랑 곧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은 사람 사는 사회의 생명력입니다. ‘인간성’의 본질입니다.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사람 사는 사회, 인간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과 인정을 살리는 일, 사회사업은 곧 인간 세상을 지키는 일, 인류를 구하는 일입니다. 인간적 사람살이를 잃어 가고 인간소외의 그림자가 짙어 가는 시대에 더욱 절실해지는 인간성! 사회사업은 그 인간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10. 사회사업의 가치

사회사업은 약자의 복지를 이루며 약자도 살 만하게 하고 더불어 살게 하는 일입니다.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 장래에 대비하는 일, 수지맞는 일입니다.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율법의 강령이고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가치, 이것이 사회사업의 크고 첫째 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믿음, 사회사업의 이런 가치에 대한 의식과 믿음이 사회사업하는 동기이고 저력입니다.¹⁾

1) 둘째도 이와 같으니 곧 사람 사는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인간 세상의 인간성을 살리는 일이라는 가치입니다.

신자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좋습니다. 사회사업가로서는 ‘정의’를 세우는 일이고 ‘인간성’을 살리는 일이라 좋습니다.

이는 우리의 젊음을 바칠 만한 가치요 생을 걸 만한 가치입니다.

더디고 힘들어도, 오해 비난 멸시 천대 가난 외로움에 시달리고 끝내 죽음에 이른다 해도, 아홉 번 고쳐 죽는다 해도...

그런데

1) 약자의 복지를 이루며 약자도 살 만하게 하고 더불어 살게 하는 일,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을 살리는 일, 이 일은 끝이 없습니다.

바울도, 열두 제자도, 예수님도, 당대에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히11: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도 이 땅에서와 사회사업 역사에서 나그네일 뿐이라, 끝내 다 이루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그러나

고전9:26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며

빌3:14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1)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므로...

1) 히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회사업가 우리의 상은 이 일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습3:17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2) 세상은 오히려 반대로 치달아 가는 것 같습니다. 정의를 버리고 인간성을 삼키며 빠르게 역행하는 형세입니다. 이런 세상에 사회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사회사업가의 존재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회사업은 시세를 거슬러 끝까지 정의를 붙잡고 인간성을 지키려는 저항 운동인지 모릅니다. 근거지가 비록 참외밭의 원두막이나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은 작은 마을에 불과할지라도…

사회사업가는 끝내 시세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 풍조에 입 맞추지 않는 칠천 명 곧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인지 모릅니다. 이 땅의 그루터기 시온의 망대지기, 이 시대의 노아나 롯인지 모릅니다.¹⁾

1) 왕상19:18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사1:7~9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이다.(롬9:27~29에 인용)

사6:13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남은 자 : 스바냐서 전체(1~3장), 사4:3~4, 사10:18~23, 렘31:7~9

롬11:2~5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께서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나?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벧후2:7~8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뜻을 견지하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복지 원형

창2:15~18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취하신 조치 세 가지

- 1)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경작하며 돌보게 하셨습니다.
- 2)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게 하셨습니다.
- 3) 여호와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만들어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구실과 자유 의지와 관계를 주신 겁니다. 이는 사람의 복지를 위한 하나님의 주도면밀한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복지의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만합니다.

구실과 자유 의지와 관계, 이는 존재의 조건이고 사람의 조건이며 인간의 조건입니다. 존재 가치이고 인격적 생명이며 사회적 생명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산다' 할 수 있습니다.

구실이 있고 자유 의지로써 선택하며 더불어 사는 모습, 이것이 사람과 사회의 본연 곧 '사람다움, 사회다움'의 원초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살게 도우셨습니다.

1) 일하시는 하나님께서¹⁾ 사람에게도 할 일을 주셨습니다.

① 복지를 이루는 데 제구실하게 하셨습니다.²⁾

② 다른 사람을 돕게 하셨습니다.

③ 에덴동산을 경작하며 돌보게 하셨습니다.

2) 당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³⁾ 사람에게도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로써 선택하고 책임지게 하셨습니다.⁴⁾

3)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⁵⁾ 사람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돕는 사람을 만들어 ‘우리’로 살게 하셨습니다.⁶⁾

당사자가 자유 의지로써 선택하며 제구실하게 하되 둘레 사람이 돕게 하고 우리로 살게 하는 방식, 이것이 사회사업의 본연 곧 사람을 사람답게 돕고 사회를 사람 사는 것 같게 하는 일의 원초적 속성입니다.

1) 램33:2~3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요5:17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2) 먹고 싶은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찾아보고 나무에 올라가거나 나무를 흔들거나 장대나 사다리 같은 도구를 써서 열매를 수확하고 옮기고 까거나 벗기거나 다듬고 더러는 조리 가공하고 차리고 먹고 치웁니다.

3) 엡1:11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4) 각종 열매 가운데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사회사업도 그러합니다. 사람 사안 상황 나름이긴 하지만, 되도록 선택할 수 있게, 당사자가 선택하고 책임지게, 도움이 좋겠습니다.

5) 창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요17:22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6)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도 족할 텐데, 다른 사람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자유 의지로 선택하고 제구실하는 당사자의 삶, 서로 도우며 우리로 살아가는 지역사회 사람살이, 이런 형상을 살리려 합니다.

1)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남의 도움이라도 자기가 선택 활용하게,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2) 복지를 이루는 데 둘레 사람과 함께하게, 둘레 사람이 함께하게, 당사자와 둘레사람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 사회사업에서는 당사자가 자기 복지를 주관하게 돕습니다.

제 삶에서는, 제 복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26:39)’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2:20)’ 합니다.

제게 최선의 자유 의지는 하나님께 여쭙고 구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 사회사업에서는 둘레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제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중시합니다. 둘레 사람과의 관계에 더 힘쓰고 의지하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경계합니다.

참조 : 복지영성 낙수 ‘인문학’

방법

첫째, 하나님께 여쭙고 구하고 맡깁니다.

둘째,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칩니다.¹⁾

1) 일반 사회사업 방법

- 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드립니다.
- ② 인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칩니다.

1.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잠3: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쭙어라. 그가 네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공동번역)

1) 하나님 마음에 맞게 그 뜻을 이루는 방법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증언하시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¹⁾

과연 그는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고 행함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맞게 그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삼상23:1~5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1) 행13:22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삼상23:7~13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피한다 함을 주의 종ی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육백 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삼상30:8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1)

1)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성읍 ‘시글락’에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당시 블레셋 아기스 왕은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윗을 믿고 함께 참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에 합류했으나 블레셋 수령들이 그가 전장에서 자기들의 대적이 될지 모른다고 그의 참전을 반대하여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을 침노하여 성읍을 불사르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에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고자 하여 먼저 하나님께 여쭙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아말렉 군대를 추격했고 잃었던 것을 모두 도로 찾아왔습니다.

삼하2:1 그 후에¹⁾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삼하5:18~20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십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흠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흘으셨다 하므로 그 곳 이름을 바알브라십이라 부르니라.

삼하5:22~24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수풀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와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²⁾

1)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사울 왕도 전사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되는지 하나님께 여쭙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유다 헤브론으로 가라 하신 말씀을 좇아 헤브론으로 갔고 그곳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모든 장로의 추대를 받아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삼하5:1~5

2) 해 본 일이라고,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지난번과 같은 상황이라고, 여쭙지 않고 올라갔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2) 하나님께 여쭙지 않으면

① ‘하나님께’ 여쭙지 않으면

왕하1:2~4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때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 보라 하니라. 여호와와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와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대상10:13~14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¹⁾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²⁾

1)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는데

아말렉의 왕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지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삼상15:1~29, 28:18~19

2) 삼상28:6~7에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신 까닭이 무엇일까 찾아봅니다. 삼상 28장 16절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18절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그 단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참조 : 복지요결 방법 편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데 잘되지 않으면?’

② 하나님께 ‘여쭙지 않으면’

사30:1~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¹⁾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 보지도 않고²⁾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새번역

※ 하나님께 여쭙지 않음의 의미와 후과

- a. 하나님께 가까이할 기회를 버리는 겁니다. → 참조 : ‘복’ 편
- b.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 참조 : ‘동기’ 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 c. 하나님과 시나브로 멀어집니다.
- d.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고 그 뜻에 맞지 않는 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³⁾

1)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일을 꾸미며 내 뜻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동맹을 맺어 죄 위에 죄를 더하는구나. 공동번역

그들은 내가 세우지 않은 계획을 수행하며 내 뜻에 맞지 않는 조약을 맺어 죄에 죄를 더하고 있다. 현대인의 성경

2)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신7:2 → 수9:14~15

3) 엡4: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새번역)

3) 여쭙고 듣는 방법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여쭙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빌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¹⁾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해 주십시오.²⁾

이렇게 여쭙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합니다.³⁾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신 소원으로 알고 행합니다.

1)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공동번역

2) 기도할 때 주시는 소원이나 생각의 근거가 성경 말씀에 있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소원이 생기고 생각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요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딤후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해 주십시오.”

3) 기도하러 갈 때 필기구를 가져갑니다. 여쭙고 나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받아 씁니다.

혹 그 생각이 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는 않으십니다.¹⁾ 그 일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²⁾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른길이니 이리로 가라’고 내 속에서 말씀하십니다.³⁾ 바른길을 벗어나 넘어지고 의기소침할 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일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⁴⁾

1) 히13:5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2) 롬8:34~35,38~39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새번역

히7:24~25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요일2:1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3) 롬8:26~27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30:20~21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 행16:6~10

2. 하나님께 구합니다.

1) 지혜를 구합니다.

약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롬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빌1:9~11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오니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사랑에 지식과 깊은 통찰력이 있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끝까지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사회사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4) 시23: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롬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① 솔로몬의 지혜

왕상3:7~9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어떻게 처신하여야 할지를. 공동번역 / 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현대인의 성경)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지혜로운 마음. 개혁)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대하1:9~12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저를 사회사업가로 세우셨으나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일이 너무 많고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하게 하신 것처럼, 제게 사랑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최선의 사랑으로 사회사업 잘하게 해 주십시오.

②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의 지혜

출35:30~35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였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단1:17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역역: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의 감동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신 것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신 것처럼, 제게도 성령의 감동과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사회사업 잘하게 해 주십시오.

③ 지혜의 원천, 지혜의 비결

욥32:6~9 부스 사람 바라벨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시119:97~100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목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잠2:6 지혜란 야훼께서 주시는 것, 그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로 지식과 슬기를 깨치게 된다. 공동번역

2) 길을 구합니다.

사48:17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시32:8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제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저를 주목하여 훈계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십시오.¹⁾

1) 시23:3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31:3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잠3: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20:24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렘10:23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자기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데려오
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의 사자
를 함께 보내실 것이다 했습니다.

창24:7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1)

창24:40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
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내 될 여자를 어떻게 알고 택할까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창24:12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
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앞서 행하시며 예비하시며 동행하시며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순조롭
게 이르게 해 주십시오.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1)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

미2:13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
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
리라.

→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길을 여시고 그들을 포로 된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
이다. 그들이 성문을 부수고 나올 것이며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

언젠가 대학생 캠프를 준비하던 중에 여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회복지를 위해 예비하신 대학생들을 모으시고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두로 가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3) 은혜를 구합니다.

사회사업 잘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무슨 기법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린 아이라고 더 쉬운 게 아니고 어른이라고 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야 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방법이나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얻게 해 주셔야 합니다.

① 요셉과 간수장

창39:20~23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¹⁾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②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

출12:35~36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시라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1) 야훼께서는 요셉을 돌보셨다. 그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쏟으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해주셨다. 그리하여 간수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겨 무슨 일이고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공동번역

③ 히스기야와 백성

대하30:1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에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했는데)

10~12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④ 에스라와 페르시아 왕

스7:6~8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칠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략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칠년 다섯째 달이라.

(이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은혜를 베풀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사람과 은금 물자를 동원해 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스7:11~26)

스7:27~28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⑤ 느헤미야와 페르시아 왕

느1:11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서 포로생활 할 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으며 남은 사람들은 큰 환란을 만나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그는 고국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 왕에게 허락과 도움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후에 왕에게 말하니 왕이 허락하고 도와주었습니다.

느2:5,7~9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재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⑥ 다니엘과 환관장

단1:3~5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삼 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8~9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

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⑦ 이스라엘 성전 재건

학1:14~15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래서… 공동번역)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 때는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이십사일이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앗수르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 가운데 일부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 때에 ‘1차 귀환’하여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으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되었다가 두 번째 왕 다리오 때에 재개, 완성했습니다. 그 후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가 유다 백성을 이끌고 ‘2차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신앙 회복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후 같은 왕 때 느헤미아가 백성을 이끌고 ‘3차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스1:1~7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⑧ 바울과 루디아

행16:12~14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¹⁾ 이 사람과 협력하여 주의 기쁘신 뜻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과 그 집과 그 사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1) 이 사람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겔11:19~20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겔36:26~27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3. 하나님께 맡깁니다.

잠16: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37:5~6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어진다 하신 말씀,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신 말씀, 말씀에 의지하여 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1)

1)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이 일을 맡깁니다.

렘33:2~3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구절이 다른 번역본들에는 모두 ‘땅을 만드신 주님, 땅을 빚어 세우신 주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에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사회사업은 ‘내가 이루었다.’ 하거나 그렇게 보이게 할 일이 아닙니다. 사회사업가가 감사와 영광을 취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여쭙고 구하고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구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함이 사회사업의 의요 사회사업가의 공의입니다.

사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사업보다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가 돋보이게 하고 사회사업가나 복지기관보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빛나게 해야 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함으로써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칭찬 감사 돌아가게 합니다.

이렇게 함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사회사업의 의요 사회사업가의 공의입니다.

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함은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며 이렇게 한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고, 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함은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믿음과 희망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¹⁾ 그저 하나님만 바라고 잠잠히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²⁾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채우시고 이루시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전3: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골1:29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³⁾

사람에 대하여는 더욱 그러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부탁한다 함은 알아서 하라고 다 맡겨 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약한 만큼 부족한 만큼 거들어 주는 겁니다. 때때로 살펴서 조정 중재하거나 칭찬 감사로써 반응하는 겁니다.

1) 슥4:6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2) 출14:13~14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대하20:15,17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시46:10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3)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책임과 자유 의지를 귀하게 여깁니다. 다만 은사 중의 은사, 책임 중의 책임, 최선의 자유 의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여쭙고 구하고 맡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경험 지식 기술 자원이 넉넉해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시20:7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44:6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시62:5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 부터 나오는도다.

시62:10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시127:1~2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잠3: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더하면 부지불식간에 경험과 지식을 믿고 제 힘으로 하려 들기 쉽습니다. 자원이 많고 돕는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 마음 두기 쉽습니다.

모두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시면 허사입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애써 수고할지라도 그러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음 두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렇므로 경험 지식 기술 자원 그 자체에 마음 두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마음 둡니다.

시33:16~17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많은 자원으로 성공한 사회사업이 없으며 사회사업가가 능력이 많아도 스스로 이루지 못합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147:10~11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역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데도다.

사31:1~3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호10:13 너희는 악을 밭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갈3:3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여 시작한 일이 순조롭게 되어 갈 때, 경험 지식 기술이 쌓이고 돕는 사람과 자원이 많아질 때, 초심을 잃어버리고 육체 곧 경험 지식 기술 인맥 자원 같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합니다. 이미 여러 번 잘한 일을 또 하게 될 때, 두려운 마음으로 더욱 경계합니다.

삼상17:45, 47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시작한 다윗이 이제는 많은 군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¹⁾ 이 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백성 칠만 명이 죽었습니다.

삼하24:10~15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칠 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칠만 명이라.

1) 대상21:1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삼하24:1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바울은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으나 이 조건을 의지하지 않았습니
다. 오히려 해로 여겼습니다. 좋은 문벌이나 학벌이나 경력을 내세우
지 않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습니¹⁾다.

왜 그랬을까요?

고전2:4~5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
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빌3:4~9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팔 일 만
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
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
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
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부터 난 의라.

하나님의 능력이 빛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돋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함이며,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 바울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율법에
대하여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참조 : 행22:3, 행5:34

제 힘으로 이론 줄 알고 자랑하거나 교만해질까 염려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삿7:2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¹⁾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사업가 쪽의 강점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주기를 꺼림은,

사회사업가나 복지기관보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더 빛나고 복지사업보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가 더 돋보이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칭찬 감사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사자와 사회의 강점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와 사회의 강점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함이 사람다움 사회다움과 사회사업 개념 가치 이상 철학 주안점에 들어맞고 부작용 없이 오래가며 수월하고 평안합니다.

사회사업가 쪽 강점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주다 보면 당사자의 자주성과 지역사회 공생성을 해치기 쉽고 당사자와 사회의 복지 바탕을 해치기 쉬우며 당사자가 문제 있거나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기 쉽고 약자 노릇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와 사회의 강점은 무한하지만 사회사업가의 강점은 유한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기 강점으로써 복지를 이루어 주려는 사회사업가에게는 그 강점이 그의 그릇 그의 한계입니다.

1)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기드온을 따라 나선 백성이 3만 2천명.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마신 백성도 돌려보냈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고 물가에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마신 3백 명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2) 준비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잠21:31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잘 준비하려 합니다. 그러나 ‘잘 준비했으니 잘 될 거야.’ 한다면 이름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준비에 있다 함과 같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했으니 안 될 거야.’ 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준비할지라도 이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했다고 자신할 일이 아닙니다. 준비하지 못했다고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준비를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께 맡길 일입니다.

준비를 많이 했거나 잘했을 때 그것에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경계합니다.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의지하려 합니다.

준비하지 못했거나 준비가 부족할 때 간절히 기도하여 오히려 잘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열심과 능력으로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곧 성전을 정확하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했습니다.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되었으나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조 : 창22:7~8 ‘여호와 이레’

대하29:33~36 구별하여 드린 소가 육백 마리오 양이 삼천 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3) 심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시126:5~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갈6: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러므로 힘써 심으려 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심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신6:10~1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네.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수24:13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시44:4 (이스라엘)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열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요4:37~38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4)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시79:9~10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렘14:7~9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렘14:20~21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사회사업은

능력이나 자원이 많은 적든 하나님께 맡깁니다.

준비를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께 맡깁니다.

심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랍니다.

4.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여쭙고 구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여쭙고 구하고 맡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만들고,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던져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왕이 그들을 불러 “이제라도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용광로에 던져 넣을 것이다.” 하니

단3:16~18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 여쭙고 구하고 맡기는데 잘되지 않아서 웃음거리가 되거나 비난을 받거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시31:14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¹⁾

시44:17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²⁾

1) 11~13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2) 13~16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못 백성 중에 이야기 거리가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러하여도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만 더욱 의뢰합니다.¹⁾

시37:3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사회사업 최선의 방법은

그러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달리 무슨 방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입니다.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
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1) 대하14:11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
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시16:2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139:7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요6:68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히10:38~39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5.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일이 어떻게 되든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시며 인자하시다고, 나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다거나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1) 범사에 감사합니다.

살전5:16~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¹⁾

엡5: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²⁾

골3:17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상황이 나쁠 때, 못마땅하거나 짜증나거나 우울하거나 억울하거나 불쾌하거나 창피하거나 불만스러울 때, 곤궁하거나 아플 때, 난제 위험 역경 시련 환란 따위를 만날 때도 감사할까요? 위선 아닐까요?

1) 어떤 처지에서든지(공동번역), 모든 일에(새번역), 감사하십시오.

Rejoice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NIV

in every thing, whatever happens, whatever the circumstances...

2) 모든 일에 언제나(공동번역, 새번역) always for everything

① 감사는 순종 행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지의 순종 행위입니다.

‘지금은 일이 잘 안 되고 고난 시련 역경을 만나서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으니, 나중에 좋은 일로 감사하겠다.’ 함은 사울의 변명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다 죽이라 하셨는데, 양과 소 가운데 좋은 것을 살려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겼다 했습니다. 이에

삼상15:22~23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② 감사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전3: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잠16:4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롬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쓰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리므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하지 않으신다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그 사랑 변함없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시106:1,107:1,118:1,118:29,136: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표현을 스물여섯 번 반복합니다.

③ 감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의 제사입니다.

시50: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69:30~31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곤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러므로 좋지 않을 때도 감사합니다. 위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진심,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려는 진심, ‘진심의 표현’입니다.

2) 염려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빌4:6~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¹⁾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²⁾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벧전5: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께서 돌보시니 이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모든 경험과 지식과 이해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시오.

1) 감사함으로 아뢴다?

① 구할 것을 아뢰기 전에,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일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살아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할 수 없거나 하기 어렵게 된 이런 일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안히 숨 쉬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일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② 복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적당한 때에 진정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신16: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③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사후에 잠깐이라도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였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즉시 감사하고, 자기 전에 감사하고, 주일예배 드릴 때에 감사합니다.

2)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평화 - 공동번역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평화 - 새번역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NIV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comprehension, NASB

3)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시103:2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골4:2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의 모든 은택에 감사하기. 잊지 않고 감사하기. 이것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① 아브라함의 늙은 종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는 말을 듣고 가긴 갔는데,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창24:12~14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 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으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결에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와서 그렇게 했고 확인해 보니 아브라함 동생의 손녀였습니다.

창24:26~27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② 다니엘

하루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꿈과 해석을 보이라고 다그쳤습니다. 꿈을 모르는데 어찌 해석하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꿈과 해석을 알려 주시자 곧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단2:23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③ 나병환자 한 사람

눅17:11~19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④ 히스기야

대하 31:20~21 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낮을 벽으로 향하여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고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를 낮게 하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왕하20:1~11

그 때에 바벨론 사신들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왕하20:17~18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 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무서운 예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대하32:22~25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앗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 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새번역 :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4) 감사는 사회사업의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딤펢전1:12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빌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회사업은 이처럼 직분을 맡기시고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먼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잘되게 하심 감사, 오늘 여기에 세우심 감사, 감당할 힘과 지혜 주심 감사, 돕는 사람과 자원을 주심 감사,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잘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감사,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사회사업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사회사업의 시작이고 완성입니다.1)

1) 감사, 이것 하나라도 잘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감사는 사회사업의 만능열쇠입니다. 그다지 어렵지도 않은데 이 얼마나 수지맞는 일입니까?

6. 근본책

렘17:7~8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마6:31~33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필요, 스스로 다 해결하거나 일일이 다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하십니다.

사회사업도 그렇습니다.

온갖 문제와 욕구를 일일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함이 좋을까요?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침 같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 같게, 복지 바탕을 살리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당사자의 복지 바탕인 주체의식과 역량, 사회성과 관계망, 지역사회와 복지 바탕인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온갖 문제와 욕구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근본책입니다.

참조 : 복지영성 낙수 '강점'

7. 단순한 실천

사30:15~16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상책입니다. 세상 풍조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히13:8)

이것이 단순한 삶의 비결입니다.

사회사업도 그렇습니다.

시세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사업가는 문제와 욕구에 빠른 말, 복지기계로써 대응하려 합니다.

그런데 복지기계가 달려가면 문제와 욕구는 날아갑니다. 복지기계가 날아가면 내성과 욕심은 타고 갑니다. 바빠지고 힘들어집니다.

복지기계가 고도화하면 부작용과 역기능도 고도화합니다. 더 어려운 문제와 욕구가 밀려듭니다. 한계효용은 줄어들고 내성은 커집니다.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시세가 어떠한든 다만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에 중심을 두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자연력을 살려서 소박하게 복지를 이루게 돕기, 이것이 단순한 실천의 비결입니다.

참조 : 복지영성 낙수 ‘위험한 수단’

자세

1. 성실

고전4:1~2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엡6:7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3: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잠22:29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근실한 개역)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성직 의식 → 성실

벧전4: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¹⁾

고전12:4~6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²⁾ 새번역

사회사업도 그로써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성직입니다. 이 소명 받들어 주께 하듯 성실하게 사회사업하기 원합니다.

1) Each of you should use whatever gift you have received to serve others, as faithful stewards of God's grace in its various forms. NIV

2) 롬12:6~8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2. 겸손

빌2:3 아무 일에든지 다툼(경쟁심 새번역, 이기적인 야심 공동번역)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벤전5:5~6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11:2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18:12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¹⁾

1) 단4:30~33 나(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 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 기한이 차서 회복한 후에 고백하는 말

단4:37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기 인식 → 겸손

대상17:16 여호와 하나님이며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시8: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39:4~5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다.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103:13~15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약4:14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고전1: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유력한, influential)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눅18: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딤후1:13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3. 존중

갈4:14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약2:1~4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53:2~3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을 나도 차별하지 않는지,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 멸시받는 사람을 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지 두렵습니다.

약자를 통해 우리를 시험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고 싶습니다. 더욱 예를 갖추어 더욱 정성스럽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해야겠습니다.

약자 인식 → 존중

약3:9~10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엡6:9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라.

시68:5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마18:10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마25:4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잠14:31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의 상전 그의 아버지 그의 보호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는 우리 주님의 형제이고 그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마음에 담아 둡니다.

※ 복지 당사자에 대한 존중의 실제

고전4:10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고후1:24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고후13:7, 9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¹⁾

사회사업도 그렇습니다.

당사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사람다움을 생각하고 당사자의 인격을 존중하여 도우면 이렇게 됩니다.

당사자가 자기 복지를 주관하며 기뻐하고 당사자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드러나고 당사자가 강하고 당사자가 존귀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지를 이루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어 당사자가 빛나고 당사자의 삶이 돋보이고 당사자의 자존심과 품위가 살고 당사자에게 칭찬 감사 돌아가야 사회사업 잘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당사자가 복지를 이루게 도우면 이렇게 됩니다. 당사자의 것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여 복지를 이루게 도우면 이렇게 됩니다.

1) 고후8: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 그 사람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인격보다 자기 의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면,

돕는 사람이 당사자의 복지를 주관하려 합니다. 당사자는 소외될지라도 돕는 사람이 선을 행하여 옳은 자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당사자가 약하더라도 자기가 강하면 돕는 사람은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당사자에게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당사자가 하게 부탁하지 않는 겁니다. 당사자를 대상화하여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자기 쪽 수단 자원으로 복지를 이루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도우면 돕는 사람은 높고 당사자는 낮은 형세라, 당사자가 자존심이나 품위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돕는 사람은 빛나는데 당사자는 구차해 보입니다. 돕는 사람은 자비롭고 당사자는 불쌍해 보입니다. 돕는 사람은 지혜롭고 당사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돕는 사람은 존귀하고 당사자는 비천해 보입니다.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기 쉬우니 경계하고 조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 그 사람다움을 생각합니다. 당사자의 삶, 당사자의 인격 자존심 체면을 생각합니다.

참조 : 복지영성 낙수 '교회의 사랑 구제 후원 봉사'

4. 사랑

1)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고전12:4~7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에도 성경은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있다고 합니다.

고전12:31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전체에 걸쳐 각양 은사와 직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있음을 밝히셨으니 곧 13장에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떤 직분을 맡았든 마땅히 사모해야 할 은사이고 누구에게나 가장 좋은 길이지만 사회사업가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사랑, 이것이 바로 사회사업하는 가장 큰 은사이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골3:12~14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2) 사랑과 정의

출23:3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지 두둔하지 말지니라.

출23:6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레19: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시112:5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시145:17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잠3:3~4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21:21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미6:8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과 정의, 이는 사회사업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치우치면 불의한 사람 또는 무정한 사람이 됩니다.¹⁾

1) 마23:23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3) 사랑과 지식

사회사업에 대하여는 스스로 사랑이 있는 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는 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 사랑이나 지식이 있다면 다른 사람도 그러합니다. 어떤 사랑이 좋은 사랑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어떤 지식이 좋은 지식인지 증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랑과 지식, 어느 쪽이든 아주 없다 할 수도 없고 온전히 갖추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과 지식에 관한 한 누가 온전하다 할 수 있으며 누구를 비난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① 사랑에 지식을

사회사업은 사랑만 있으면 된다거나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랑은 선치 못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무엇이 참 사랑이며 가장 좋은 도움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잠19:2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밭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는 나라.

요16:2~3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딤펵전1:13과 빌3:6 바울의 고백 참조)

롬10:2~3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빌1:9~11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② 지식에 사랑을

고전1:26~29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회사업가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문벌 학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강한 것이나 있는 것이라 할 만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자격증이나 학위를 내세워 스스로 지식이 있다 전문가다 하면, 다른 사람들을 택하여 우리를 부끄럽게 하실지 모릅니다.

아니, 벌써 부끄럽습니다. 별다른 지식이나 재주가 없어 부끄럽고, 사랑의 수고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과 함께 울고 웃으며 행함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특히 그렇습니다.

롬12:15~16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고전8:1~2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요일3: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5. 보답

마10:8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눅6:34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눅14:12~14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대조 :

집회서 12:1~5 선행을 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를 알고 하여라. 그래야 상대방이 네 자선에 감사할 것이다. 하느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보상을 받으리라. 그 사람이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갚아주신다. 악을 일삼는 자와 인색한 자에게는 선행을 베풀지 말아라. 하느님을 공경하는 사람만을 도와주고 죄인은 도와주지 말아라. 겸손한 사람에게 선심을 베풀고 교만한 자는 돕지 말아라. 그런 자에게는 빵도 주지 말고 남이 주는 것도 막아라. 공동번역

참조 : 28쪽 '사회사업가의 상급'

1) 도움 받는 사람이 몰라주거나 악으로 갚을 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눅6:35~36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2)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감사는커녕 도리어 해를 끼치는 사람을 보며 ‘다시는 돕지 않으리라. 차라리 사회사업을 그만두리라.’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렘20:8~9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 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셔서 그 사람의 복지를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고후5:13~14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갈4:19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참조 : 143쪽 ‘눈물 흘릴 일이 있는 사회사업가’

6. 권리

1) 예수님

빌2:5~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2) 모세

히11:24~26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3) 바울

고전9:11~12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고전9:17~18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살후3:7~9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

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4) 느헤미야

느5:14~18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이 십년부터 제삼십이년까지 십이 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사십 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백오십 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1) 바울은 천막 사업으로 생활비와 활동비를 충당했습니다.

행18:2~3 바울이 그들(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행20:34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외 : 고린도와 아가야의 신자들을 섬기기 위해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 습니다.(고후11:8~9) 흉년에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신자를 돕기 위해 마케도냐와 고린도와 아가야의 신자들로부터 연보를 거두었습니다.(고후 8~9장)

5) 아브람과 에서

창13:5~6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나라. 8~9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36:6~8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 산에 거주하니라.

6) 사회사업가

우리도 이렇게 도울 수 없을까요?

하나님과 동등함, 공주의 아들 자리, 사도직의 보수, 총독의 녹봉,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에 더 마음 쓸 수 없을까요?

좋은 자리 차지할 실력이 있고 권리가 있을지라도 낮은 자리를 택할 수 없을까요? 보수를 받아 누릴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을지라도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여 다 누리지 아니하고 희생 봉사하며 청빈하게 살 수 없을까요?

갈5: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7. 하향

마7:13~1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막10:42~45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¹⁾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눅14:8~11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²⁾

눅20:46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1) 어찌 반드시 크고자 하거나 으뜸이 되고자 함이겠습니까? 주님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기 때문이고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2)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겠습니까? 높아지기 위함이겠습니까?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좋은 자리 꿰차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쉬운 일을 맡거나 편한 자리에 안주하고, 먹고살 만한 사람이 더 많은 보수를 받는다면…

실력이 있고 권리가 있다고, 안정된 직장, 많은 보수를 주는 곳,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면… 이렇게 좋은 것을 다 차지한다면, 이는 ‘우월한 지위’의 남용이고 오용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회사업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회사업가는 몰라도 예수 믿는 사회사업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눅12:48

이러므로 남보다 더 배운 사람, 더 받은 사람은, 더 어려운 자리에서 더 어려운 일을 감당합니다. 명문대 사람일수록 더 어려운 곳에 헌신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어려운 일을 맡습니다. 먹고살 만한 사람일수록 보수가 더 적은 곳에서 봉사합니다.

나름대로 사정이나 뜻이 있어서 좋은 데 간다면 거기서 남보다 더 수고하고 희생 봉사합니다. 개혁 개선 개발 혁신하며 그 지식 경험 생각을 공유하는 데 힘씁니다.¹⁾

1)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빌3:5)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행 22:3)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행22:27) 이런 조건으로 중앙으로 갔다면, 관료나 교수가 되었다면, 세상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세레 요한이나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8. 개척

1) 네가 개척하라.

수17:14~18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나눌 때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벨 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 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곳은 삼림이고, 그곳 사람들은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하다.’

이런 곳은 누가 개척해야 합니까?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으니, 네가 개척하라.’

좋은 대학 나왔으니, 남보다 더 배웠으니, 먹고살 만하니, 경력이 있으니, 실력이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젓과 풀이 흐르는 평지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고 너는 삼림을 개척하라.

2)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수14:6~12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나눌 때에) 갈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와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사십 오 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팔십 오 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정복하지 못한 땅, 그곳 사람들은 강하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한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갈렘...

팔십 오 세나 되었어도 안주하지 않고, 가나안 정복의 일등공신임에도 좋은 땅 차지하지 않고, 험한 산지를 개척하겠다고 나서는 갈렘...

갈렘을 보며,

사회사업 산지를 생각합니다.

좁은 문 험한 길 낮은 자리를 생각합니다.

원칙과 변동

1. 기준

1) 원론적 기준 : 지식과 믿음

막7:18~19 (예수의 제자들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행10:14~15 (하늘에서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릇에 담겨 내려오고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고전8:4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딤후4:3~5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런 지식과 믿음이 있으면 제사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2) 소극적 기준 : 부작용

그러나 누구나 다 이런 지식이 있는 건 아니므로, 제사음식을 먹는 내 행위가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을 헤아려 제사음식을 먹지 않고 무엇이든지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음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고전8:7~13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¹⁾

롬14:15~21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

1) 마17:24~27 가버나움에 이르니 (성전세)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3) 적극적 기준 : 사람들의 유익과 구원, 하나님의 영광

고전10:23~31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원론적 기준도 없이 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작용을 예방 최소화할 수 있는 소극적 기준에도 유념하여 변통하거나 신중히 행함이 좋습니다. 나아가 적극적 기준까지 적용하면 더욱 좋겠습니다.1)

※ 인자와 진리,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잠3:3~4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23: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 술을 마시면 죄나 문제가 되는가? 이는 소극적 기준입니다.

어느 편이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가? 이는 적극적 기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술을 마시는 편이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처신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음이 오히려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상황(요2:1~11)이나 사람(딤후5:23)이나 동기나 방식을 헤아리는 겁니다.

딤후5:23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집회서 31:27~28 절제 있게 마시면 술은 사람에게 생기를 준다. 술 없는 인생이 어떠하랴? 술은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마셔야 할 때에 적절하게 마시면 술은 마음의 즐거움이요 영혼의 기쁨이다.

잠31:4~7 르무엘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급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출지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2. 사람에 따라

잠27:7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린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¹⁾

롬14:5~6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고전7:7~9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²⁾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다른 쪽을 존중 배려하는 자세를 배웁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생각이나 처지가 다를 수 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1) 집회서 37:28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같은 것에 만족하지는 않는다.

시설 사회사업에서, 아주 어려운 입주자도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며 자기 삶을 살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람 구실 하게, 이렇게 도와야 할까요?

2) 마19:10~12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이다.

3. 경우에 따라

1) 죄인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나쁘니까?

눅5:29~32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2) 금식 기도는 좋습니까?

눅5:33~35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3) 새 것이 좋습니까?

눅5:36,39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4) 생명 존중은 절대 원칙입니까?

삼상15: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5) 우상 신전에서 일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까?

시리아 군사령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병을 치료받고 돌아가는 길에 말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호와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왕께서 림몬 신전에 예배하러 가실 때에 부축해 드려야 하고 왕께서 림몬 신전에서 예배할 때같이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만은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대답은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였습니다. 왕하5:17~19

사회사업은 교조처럼 따를 이론이 없습니다.

항상 좋기만 한 것도 없고 항상 나쁘기만 한 것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안과 상황에 따라, 때와 곳에 따라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4. 변통

마15:21~28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막7:26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으셨으나 이방인도 아주 거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기 수로보니게 족속 헬라인 여자의 딸뿐 아니라 로마 백부장의 종도 낮게 하셨습니다.(눅7:2~10)

사마리아 어느 마을이 예수를 받아들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받아들여야 했어야 할까요?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눅9:51~56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어떻게든 믿게 만들어야 했을까요? 다른 촌으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마13:54~58

참조 : 144쪽 ‘다른 길을 찾아보자.’

욕구

막10:35~45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1)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약인지 독인지,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잘 모르고 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출14:12 (애굽 군대가 뒤쫓아 오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민11:18~20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닻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시106:13~15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삼상 8장.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시고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설명한 후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백성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끝내 왕을 요구했습니다.

마16:21~23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약4:3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2)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사회사업가의 정체성이나 권한 처지 역량에 맞지 않아서 들어줄 수 없는 욕구가 있습니다. 참조 : 112쪽 ‘선택과 한계’

눅12:13~15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3)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사회사업 가치 이상 철학 같은 근본을 거스르는 욕구, 특히 둘레 사람과의 관계, 공생성을 해치는 욕구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돕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만큼 불리해지거나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경쟁을 돕는 일이 그러합니다.

4)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람다움 사회다움을 비롯한 사회사업 근본이나 사회사업가의 경험 지식 정보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거나 설득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다만 비판 간섭 훈계 지시 통제로 느낄 수 있는 표현은 삼갑니다.

참조 : 복지요결 사회사업 방법 편 ‘의논하기’

평안

1. 때때로 쉽니다.

막6:30~31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날
날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
니 이는 오고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눅5:15~16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
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신 때는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
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오고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러가 한
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던 때는 허다한 무리가 절박한 욕구와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몰려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 쉬라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할까요?

사회사업은 끝이 없습니다. 때때로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거나
쉬면 좋겠습니다.¹⁾

1) 요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
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골3: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2. 평안히 잡니다.

시3:5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다.

시4:8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¹⁾

시127: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²⁾

1) 집 없는 사람, 평안히 누워 잘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회사업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길거리나 불면의 고통 속으로 돌아가는데 사회사업가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평안히 누워 잘 수 있을까요?

2) 대조 :

잠6:9~11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19:15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주될 것이니라.

잠20:13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잠23:21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해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3. 낙을 누립니다.

전3:12~13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3:22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전5:18~19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전11:8~9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 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빌4: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살전5:16~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합3:17~18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전9:9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잠5:18~19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¹⁾

1) 잠18:22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신24:5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일 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대조, 삼하11:11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4.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잠25:6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잘난 체하기, 높은 자리에 서기, 경쟁, 논쟁, 자존심 세우기 - 이런 일이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남을 이기려 하지 않음이 좋겠거니와 특히 왕 같은 사람이나 왕 노릇 하려는 사람에게 대하여는 더욱 그러합니다.

어느 무리 어느 영역 어느 자리에나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곳에선 왕 같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여기거나 남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단체장이나 기관장 같은 대표는 물론이고, 후배가 따르는 선배, 부하 직원을 거느린 상사, 자녀 앞에 있는 부모, 제자와 함께 있는 선생, 어떤 일의 권위자나 책임자, 이런 사람이 그 무리 그 일에서 '왕'입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은 혼자라도 그의 세계 그의 영역 그의 자리에서 '왕'입니다.

상대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보다 낮은 데 처함이 좋겠습니다. 자리나 공이나 힘이나 재주나 지식이나 명예나 인기나 논쟁이나 다른 무엇으로든 그를 이기려 하지 않음이 좋겠습니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그를 높이고 나를 낮춤이 좋겠습니다.

딤후3:9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기려 하는 일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율법에 관한 다툼’ 같이 무익하고 헛된 일이 아닌지, 이겨 봤자 별 이로울 것이 없고 저 준다고 크게 해로울 것도 없는 일은 아닌지, 헤아리고 또 헤아려서 되도록 내려놓는 편이 좋겠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이기거나 내가 상대방에게 저 주는 영역, 그런 여지를 돕이 좋겠습니까. 상대방의 자존심 위신 명예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걸린 일이 아니라면, 진다고 큰일 날 문제가 아니라면, 저 주는 편이 평안히 사는 길 아닐까 싶습니다.

전4:4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나는 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자기 이웃에 대한 시기 때문인 것을 알았다. 이것 역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

빌2: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롬12:16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이나 시기심으로 경쟁하는 건 아닌지 성찰할 일입니다. 도토리 키 재기가 아닌지,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날 때에 밀려나게 될 자리가 아닌지, 헤아려 볼 일입니다.

아예 경쟁을 피하고 높은 자리를 피하고 명리나 상찬을 피하는 편이 평안히 사는 길 아닐까 싶습니다.

5. 선택과 집중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을 하는 동안 다른 일은 못하거나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 들면 기력이 소진합니다.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이도 저도 잘 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어떤 일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익한 일이라서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거나 절실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제 자리에 충실하기 위함이고 핵심에 집중하기 위함이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1) 레위 사람

대상9:28~33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어가고 수효대로 나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의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맛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밤낮으로 자기들의 일만 해야 하였으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새번역

2) 마리아

눅10:38~42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 열두 사도

행6:1~6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열두 사도는 그 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였습니다.

4) 바울

바울은 자기 형제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했고, 마땅히 유대인에게 먼저 전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일이었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지만 다른 편, 곧 이방인 전도에 주력했습니다.

롬9:1~3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행13:46~47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1)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행22:21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갈2:8~9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 단, 이방에서 만나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행9:15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뜻,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세례 베푸는 일도 내려놓았습니다.

고전1:14~17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5) 지체 의식

롬12:4~8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고전12:17~21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저마다 자기 일로써 사회복지에 기여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사업가는 사회복지를 위한 일이라고 다 하려 들지 않고 사회사업 본분에 충실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저마다 제자리에서 자기 일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잘 기여하게 주선합니다. 저마다 제 몫에 충실할 때 사람살이의 바탕이 튼실해지고 사회복지도 든든히 서는 법입니다.

시131:1~2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 떼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 떼 아이와 같도다.¹⁾

1) 잠26:17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딤후5:22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시험 역경

사회사업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욕심이나 게으름이나 방심 때문에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말실수 때문에 화를 입기도 합니다. 별난 기질이나 성격, 부적절한 행동, 실수, 능력 부족 때문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목 잡히기도 합니다.

윗사람의 염려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대상자에게 환멸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폭언 폭력 위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대상자의 가족 친지 이웃을 비롯한 돌레 사람의 무관심, 몰이해, 비난, 까탈에 데여 의욕을 잃기도 합니다.

동료나 상사와의 갈등으로 마음고생 하는 일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책임을 뒤집어쓰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혹독한 꾸중을 듣기도 합니다. 무시당하거나 모욕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해나 견제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험담 비방 모함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나 능력에 맞지 않은 일을 맡아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잘 가고 있는지 몰라 답답하기도 합니다.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며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1. 성찰합니다.

고난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어리석어서, 게을러서, 무례해서, 무지해서, 무능해서, 죄 때문에...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어려운 사람의 처지와 심정을 알게 하시려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려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어느 경우든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고칠 점은 고치고 바꿀 건 바꾸고, 갚을 건 갚고,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물러날 일이면 물러나고... 각각 합당하게 조치합니다.

참조 : 욥1:12 풍랑과 요나 | 수7:20 아이 성 패배와 아간

전7:14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 약5:13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애3:38~40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5:23~24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벧전2: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2.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감사
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롬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¹⁾

살전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
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조 : 64쪽 '감사'

1) 사례

창50:19~21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
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빌1:12~14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됨을 기뻐하며) 형제
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
노라. 이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
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 받은 것을 헤아리며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실명하셨는데, 그동안 잘 보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잃게 되면 지금까지 누리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편히 숨 쉬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고 움직일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를 버리거나 내게서 멀어져 갈 때, 그동안 나를 받아 주고 참아 주고 함께해 주었음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그가 내게 잘해 준 것, 그가 있어 유익했던 것을 헤아리며 감사하고 싶습니다.

3. 찬양합니다.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51:4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119:75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시145:17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참조 : 136쪽~ ‘르호보암, 여호사밧, 다니엘, 하박국, 바울과 실라’ - 고난·역경 가운데 감사 찬양했습니다.

4. 기뻐합니다.

행5:40~41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롬5:3~4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고후12:9~10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대에 강함이라.

약1:2~4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벤전4:12~13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무릇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어려움도 생기는 법입니다.

딤후3:1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5. 훈련으로 여깁니다.

사회사업가에게 필요한 훈련으로 여기고 사회사업하는 데 강점으로 쓰일 것을 기대합니다.

고후1:3~4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지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 받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고통 처지 심정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써, 고난 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받는 사람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 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동정하실 수 있다 하셨습니다.

히2:18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6. 기대합니다.

욥23:10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119:71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롬8: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후4:17~18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히12:5~11 내 아들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7.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31:6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수1: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43: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슥3:16~17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요16:33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잠24:10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 잠4: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18:14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왕상2:1~2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 토비트 8:21 여보게 이 사람, 썩썩하게 살아가게. 공동번역

대상28:20~21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와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 있으리라.’

대하32:6~8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히스기야가)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앗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학2:3~5 (황폐한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와 함께하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8. 하나님께 피합니다.

대하16:9 여호와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시18:1~2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46: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50: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56:3,11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57:1~2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시62:5~8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40:28~31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46:3~4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얹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나1:7 여호와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고전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후1:8~9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환난 날에 부르는 자를 건지시며 당신께 피하는 자를 아시며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겪게 하지 않으시고 시련을 겪을 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9. 기다립니다.

시30:5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37:7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40:1~2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126:5~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 갈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애3:25~28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와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멩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애3:32~33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 렘29:11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약5:7~8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0. 말씀을 행사합니다.

시119:48~50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119:107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어나게 하소서.

시119:143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읊조리며 말씀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그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읊조리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십니다.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읊조리면, 원망 불평 멀어지고 의심 불안 스러지고 두려움이 물러납니다. 의욕이 생기고 용기가 납니다.

말씀밖에 소망이 없고, 말씀밖에 의지할 것이 없고, 말씀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읊조리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행사하는 것이 힘이고 기쁨입니다.

시27:1 여호와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27:14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42: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46:1~3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62:5~7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미7:7~8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사50:8~9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툼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고전15:55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11.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히12:1~3 이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십자가를 참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해 주십시오. 피곤하여 낙심하게 될 때에 죄인들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벤전2:19~24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사53: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게 해주십시오. 욕을 당할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할 때 위협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게 해주십시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입을 열어 말을 한다면 원망 대신 감사를, 저주 대신 축복을 하게 해주십시오.

마26:39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고난의 쓴 잔 앞에서 “저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12. 선지자들을 본받습니다.

약5:10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1) 욥

약5:11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스바 사람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종들을 죽였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달려들어 종들을 죽이고 약대를 빼앗아 갔습니다. 태풍에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욥1:20~22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 하며 이르되 '내가 모테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2:7~10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2) 다윗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은 급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도망합니다. 자식을 피하여 도망하는 처지 그 비참한 상황에서

삼하15:25~26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고난이 비록 자기 죄로 말미암았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얻기를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며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시다, 나를 어떻게 처분하시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고백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따져 묻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자세입니다.

3) 르호보암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와는 의로우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만 하십니다.” 했습니다.

애굽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여호와의 행위를 “옳다, 의로우시다.” 한 겁니다. 자기들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옳다는 고백입니다.

대하12:1~7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으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 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오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천이백 대요 마병이 육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숙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4) 여호사밧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역대하 20장

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이며,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맞서 나갈 때에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여 그들을 진멸하셨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는 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는 말,

“하나님,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5) 예레미야

눈물이 시내처럼 쉬지 않고 흘렀다는 예레미야 선지자. 애3:48~49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찬양하기를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했습니다.

애3:14~23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릇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쪽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음이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쪽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은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6) 히스기야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① 방어책을 세우는 한편 백성을 안정시켰습니다.

대하32:1~8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앗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앗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②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대하32:20~21 (앗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를 겁박하고,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산헤립의 신하들도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고 백성을 겁박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앗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앗수르 왕이 낮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왕하19:1~4 (앗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협박하며 항복을 요구하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썬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앗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라 하니라.

왕하19:14~20 (앗수르 왕 산헤립이 사자를 보내어 위협하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와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에 홀로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와 홀로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앗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왕하19:35~37 이 밤에 여호와와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앗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예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7) 다니엘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다니엘을 비롯한 세 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총리들이나 방백들보다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시기하는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하려 했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했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제부터 삼십 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금령을 세워 달라고 왕에게 건의한 것입니다. 이에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습니다.

단6:1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감사한 다니엘,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상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단6:26~27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시50: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8) 하박국

합3:17~19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9) 바울과 실라

행16:23~26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꼬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10) 바울

뜻을 좇아 행하는데 잘 풀리지 않거나 오히려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남들이 싫어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천천히 가거나 돌리 가거나 한 걸음 물러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뜻으로 사는 사람이 그 뜻을 버리고 다르게 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고후5:14

그 일을 그렇게 아니하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게 되기 바랍니다. 렘20:8~9

뜻을 좇아 선을 행하다가 눈총 맞고 혼나고 비난받고 애통하고 눈물 날 때, 그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기 원합니다. 뜻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갈4:19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골1:24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수고하며 애태우며 눈물 흘릴 일이 있는 사회사업가, 누군가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며 그의 복지를 이루기까지 다시 또 수고하며 애태우며 눈물 흘리는 사회사업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5:3~12

13. 다른 길을 찾아봅니다.

사마리아 어느 마을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눅9:51~56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13:54~58

이처럼 둘러 가거나 천천히 가는 편이 나을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 편이 좋을 경우도 있습니다.

마10:11~14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행18:5~8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14. 받아들입니다.

사는 게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시90:10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전3:1,4,8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7:14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1)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1) 행복한 날에는 행복하게 지내라. 불행한 날에는, 이 또한 행복한 날처럼 하느님께서 만드셨음을 생각하여라. 가톨릭 성경

When times are good, be happy; but when times are bad, consider this: God has made the one as well as the other. NIV

But in the day of adversity consider that God has made the one as well as the other. AMP

15. 죽으면 죽으리라 합니다.

1) 에스터

아하수어로 왕이 바사(페르시아)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왕이 하만이 라는 사람을 최고 지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 하지도 아니하니’ 하만이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 을 다 멸하고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 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왕의 조서를 만들어 각지에 보냈습니다.

이에 모르드개가 왕후 에스터에게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조서 초본을 보여 주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예4:15~16 에스터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 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 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때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이는 법이 있었습니 다. 예외로 왕이 그 사람에게 규를 내밀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터는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삼십 일이나 되 었다 했으니, 그런 처지에서 왕에게 나아가는 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터는 모르드개와 유다 동족에게 밤낮 삼 일을 금식하며 중 보 기도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왕 앞에 나아갔습니 다. 다행히 왕이 규를 내밀었고 에스터는 자기 민족을 살려 주기를 간 청했습니다. 결국 유대인은 살게 되었고, 하만은 처형당했습니다.

2) 야곱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 야곱의 아들들 곧 요셉의 형 열 명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팔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변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간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워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곡식을 주어 보내면서 막내아우를 데려와야 정탐꾼이 아닌 줄 알고 시므온을 풀어 주고 무역을 하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이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그들이 당한 일을 말씀드리니, 야곱은 “요셉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며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자 다시 양식을 사러 보내야 했고 베냐민을 데려가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베냐민까지 함께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43:14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3) 사나 죽으나 얻으나 잃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무엇을 잃는다 한들 대수이겠습니까?

롬8:35,38~39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6. 사람이 힘들게 할 때

1) 성찰합니다.

① 내게 잘못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반성하여 고칠 일이면 고치고 사과할 일이면 사과하고 갚을 건 갚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각각 합당하게 조치합니다. 참조 : 118쪽 '성찰합니다.'

②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그 사람은 나를 징계하려고 세우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잠16:7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함1:12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2) 그 사람의 처지나 동기를 헤아립니다. 마음을 알아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겁니다.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해 부족이나 오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도 나 때문에 힘들지 모릅니다. 나보다 더 아프고 괴로울지 모릅니다. 관심 위로 인정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더 예를 갖추어 더 정성스럽게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참조 : 요셉의 형제들(창세기 37장), 압살롬(사무엘하 13~15장)

3) 그 사람의 다른 면도 봅니다.

잠14:4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4)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잠20:22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잠24:29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롬12: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신32:35

벧전2:23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서서 판단하여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1)

1) 창31:11~12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 보라 양 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품삿을 열 번이나 변경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출3:9~10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5) 용서합니다.

마6:14~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18:21~22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눅17:3~4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엡4:32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3:13~14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① 요셉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고자 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 형들이 흉년에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정탐꾼과 도둑으로 몰려 요셉 앞에 끌려갔습니다. ‘이제 죽었다.’ 했을 겁니다. 요셉에게 행한 일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그러나

창45:4~8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 나이다. 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 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로 형들을 안심케 했습니다. 그 후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 까?’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창50:19~21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 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 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② 다윗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오자 사울 왕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삼상17:32)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을 위기에서 구해 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울 왕이 악령이 들려 괴로워할 때에 그를 위해 수금을 타서 악령이 떠나게 해 주었습니다.(삼상16:23)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습니다.(삼상18:5)

그럼에도 사울 왕은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악령이 들었을 때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삼상18:10~11, 19:9~10) 사위로 삼겠다며 그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일백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만들 속셈이었습니다. 자기 딸을 미끼로 삼아 다윗을 죽이려 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고 블레셋 사람 이백 명의 양피를 가져왔습니다.(삼상18:20~27)

그 후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명령하여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삼상19:1) 이에 다윗이 도망하자 거둬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친히 다윗을 잡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도피를 도와준 사람들은 무참히 살육했습니다.(삼상22:6~19)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어느 동굴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데 마침 그 굴 깊은 곳에 다윗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와 금하시는 것이다.” 하며 부하들을 금하여 사울 왕을 해하지 못하게 했고,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했습니다.(삼상24:1~12)

그 후 다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데리고 십 광야에 진을 쳤는데, 밤에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가서 보니 사울 왕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군사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떠났습니다.(삼상26:1~12)

그 후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잘 죽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옷을 찢고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애가를 지어 조상했습니다.(삼하1:1~27)

③ 바울

딤후4:14~16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알렉산더에게 많은 해를 받았으나 직접 갚지 않고 주께 맡겼습니다. 다만 주의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에 함께한 자가 없고 모두 자기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6) 축복합니다.

시109:4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
이라.

눅6:27~28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
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
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눅23:34 십자가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
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행7:55~60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
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
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
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
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
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롬12:1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7) 선으로 갓습니다.

출23:4~5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옆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롬12:17~18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롬12:20~21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살전5:15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벧전3: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무시하거나 복수하거나 혼내거나 징계하면, 그 사람은 집에 돌아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 어떤 기분일까요? 그 사람의 부모나 자녀나 배우자가 알게 되면 어찌될까요?

그 사람도 측은하거니와 그 사람의 가족을 생각하면 미움이 싹 가십니다. ‘차라리 내가 힘들고 말지.’ 하게 됩니다.

※ 다른 선택

마18:15~17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고전5:1~2,6,13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딤후3:10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잠22:10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 남을 힘들게 한 일, 남의 마음 아프게 한 일,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있고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17. 떠나야 하는가?

기관의 정책이나윗사람의 생각을 따를 수 없다면, 동료나 아랫사람들과 갈등이 심하다면, 개선될 것 같지 않다면,

기관이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게 한다면, 인권침해가 자주 일어난다면,윗사람이 공금·시간을 유용·횡령하거나 직원을 부당하게 부린다면, 거기에 붙어 있음이 문제를 호도·방조하는 꼴이라면, 바꾸어 낼 계획과 가능성이 없다면…

1) 떠납니다.

사52:11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와 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고후6:14~18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엡5:7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엡5:11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2) 기다립니다.

① 에스터

에스터는 자기 민족을 삼켜 통치하던 나라(페르시아)에서 왕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을 몰살하려 했는데, 왕후 자리에 있었기에 자기 민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4:14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② 오바다

가뭄이 들어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기 어려운데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찾아 죽이던 때에, 오바다는 아합 왕 밑에서 궁내 대신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덕에 선지자 백 명을 숨기고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왕상18:3~4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의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백 명을 가지고 오십 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③ 식민국 바벨론과 바사에서 최고위 관료로 봉직한 다니엘(단2:48, 6:1~2), 식민국 바사의 왕을 위해 술 관원 노릇 한 느헤미야(느1:11), 침략 전쟁과 식민 압제의 앞잡이 로마군대에서 백부장으로 복무한 고넬료(행10:1)...

18. 과거가 발목 잡을 때

삼하11:2,4,5,15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 오게 하고 그 여인이 임신하매,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마26:69~74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아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행9:1~2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딤후1:13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참조 : 61쪽 '죄를 지어도'

19. 남이 어려움 당할 때

1) 자신을 돌아봅니다.

눅13:1~5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6: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 그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17:5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잠24:17~18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욥31:29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엡4:32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유1:22~23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붙여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3) 말을 삼갑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재앙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왔으나 설교만 늘어놓다가 이내 확신도 하지 않은 온갖 죄목을 사실인 양 들이 대기까지 하며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했습니다.

욥4:7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22:4~7,9~11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끊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 무덤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대조 : 18쪽 ‘욥의 변론’

친구들의 말은 오히려 욥을 괴롭게 했고 하나님께도 책망 받았습니다. 욥에게 정녕 필요했던 건 무엇일까요?

욥16:2, 12:3, 13:4,13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욥19:2~4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욥19:21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22 그만큼 헐뜯었으면 직성이 풀릴 만도 하지 않은가? 공동번역)

참조 : 193쪽 ‘비판 책망’

평가

1. 기준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좋게 할까요, 인사권자나 정부나 평가단에 좋게 할까요? 양자가 상충한다면 어찌할까요?

갈1: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살전2:4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잠29:25~26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¹⁾

고전4:4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1)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 모습, 굴종이나 아침으로 보이는 모습이 실은 존중하여 예의를 갖추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 담대해 보이는 모습이 실은 독선 고집 교만인지도 모릅니다.

겉모양으로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살펴 경계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삼상16:7

사51:12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출1:15~21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막15:15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요12:42~43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행4:18~20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2. 칭찬

1) 칭찬은 남이 해 주는 것입니다.

잠27:2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고후10:17~18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2)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는 없습니다.

잠29:27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전7:5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칭송)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눅6:26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딤후3:1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3) 칭찬은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잠27:21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칭찬은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고 자신감과 의욕을 높이기도 하지만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시기 질투 일어나고 구설에 오르기 쉬우니 시험이고, 자랑하려는 마음이 은근히 일어나니 시험이고, 착각이나 교만에 빠질 수 있으니 시험이고, 칭찬받은 대로 행하거나 더 잘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생기니 시험입니다.

딱히 잘하는 일도 없는데 사회사업한다는 사실만으로 칭찬받기 쉽습니다. 수고나 효용에 비해 지나치게 칭찬받기 쉽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4)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칭찬받게 합니다.

삼하12:26~31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진 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 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썬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3. 자랑

1) 사회사업가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자랑할 것

렘9:23~2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사회사업가는 그의 선행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려거든...

하나님은 약자를 위하여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 줄 알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모시는 것 곧 약자를 도와 복지를 이루게 하는 것과 세상을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곳이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자랑할지니 나는 이런 일을 기뻐하노라.

갈6: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2) 자랑할 수 없는 이유

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대상29:14,16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고전4:7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

고후3:5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사회사업가의 것으로 복지를 이루어 주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 복지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회사업가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자랑하게 함이 마땅합니다.

사회사업가가 자랑한다면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 복지를 이루니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자랑하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공을 돌림이 마땅합니다.

②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10:15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러 함과 같음이다.

앗수르 왕이 그랬습니다. 앗수르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진노의 막대기인데, 앗수르 왕은 자기 힘으로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사10:13~14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지 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습니다.

단4:30~32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고전10:11~12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③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전3:6~7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전15:10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④ 해야 할 일을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눅17: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고전9:16~17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⑤ 실질 이상으로 생각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고후12:6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할 것 같아서 자랑은 그만 두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⑥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상17:16~18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축복의 예언을 전하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어 나는 누구 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이어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 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어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 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고전1:26~29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 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 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능한 자가 아니고 문벌 학벌 좋은 자도 아니고 강한 것이나 있는 것도 아닌데, 세상의 미련한 것, 천한 것, 약한 것, 없 는 것, 허물 많은 것인데, 이 같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고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딤후1:12~13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⑦ 자랑은 수고를 헛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6:1~4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 다른 관점¹⁾

마5:15~16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후9:12~13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구제 헌금)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번역

벧전2: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 요5:41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살전2:6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4. 물러나기

이루되 머물지 않음이 좋습니다.

울무를 벗어나는 새처럼 속히 떠남이 좋습니다.

마14:19~23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들은 여자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제자들을 재촉하여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도 무리를 보내고 떠나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먹이셨을 때 무리가 어떻게 반응했을지 당시 상황을 상상해 봅니다.

요6:10~15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1)

1) 요4:1~3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래아로 가셨다. 가톨릭 성경

5. 내려놓기

전3:1~8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
시90:12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벧전1:24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시102:11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¹⁾

자리 이름 권위 관심 칭찬 인기, 모두 꽃과 같이 떨어지고 풀과 같이 시 들고 안개처럼 스러집니다. 아무리 성해도 결국 쇠합니다. 누구나 다 옷과 같이 낡아집니다.

때가 되었다 싶으면 집착하지 않고 미련 두지 않고 내려놓음이 좋겠습니다. 내 때가 있고 뒷사람의 때가 있으니, 때가 되었다 싶으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3:30’ 함이 좋겠습니다.

살전2:19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고후4:16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뒷사람이 잘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자랑하며, 나는 다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힘써야겠습니다.

1) 약1:10~11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6. 영광을 하나님께

1) 베드로

① 고넬료가 그의 집에서 일가친지와 함께 기다리다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했습니다. 행10:24~26

② 날 때부터 걷지 못하여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러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백성에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행3:1~16

2)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바울이 보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하여 이들에게 제사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소리 질러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했습니다. 행14:8~18

3) 천사

계22:8~9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4) 요셉

창41:15~16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풀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5) 사무엘

삼상7:12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셴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 신1:31,33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은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6) 다니엘

하루는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나라의 모든 박사를 불러 꿈과 그 해석을 보이라고 다그쳤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꿈과 해석을 다니엘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꿈과 해석을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사들의 생명도 살리게 되었습니다. 생색내거나 우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단2:27~28,30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사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 주려 하심이니이다.

7) 모세

민20:7~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베푸는 양,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백성에게라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리라.’ 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냈어야 합니다. 이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27:12~14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시106:32~33

8) 헤롯

행12:21~23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9)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48:11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를 위해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잘못했거나 실수했지만,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해 참으셨고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왕하19:31 여호와와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사9:7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이름에만 돌리십시오.

시115:1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10) 사업 보고

바울은 첫 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행14:26~28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행15:3~4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다음 선교여행 후 예루살렘에 가서 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행21:17~21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했습니다.

※ 숙제

일반 사회사업에서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행한 일,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일어난 일을 위주로 보고합니다.

당사자가 이루었다고, 지역사회가 이루었다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공을 돌리며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감사합니다.

일반 사회사업 보고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언어

1. 말의 원천

1) 입을 지으신 하나님

출4:10~12 (여호와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시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리하니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렘1:4~9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제 입을 지으신 하나님,
할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2)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삼하23:2 여호와와 영이 (다윗)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어.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마10:19~20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눅21:12~15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요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저를 통해 친히 말씀해 주십시오.

3) 좋은 심성과 지성

마12:33~35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잠15:2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생각으로 말하며 그 머리에 쌓은 지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좋은 생각으로 채우고 머리에 좋은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합니다.¹⁾

1) 전8:1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좋은 책을 읽으며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할 때는 얼굴표정과 몸가짐, 언어행실에서 기쁨이 느껴집니다. 이리므로 겉을 꾸미기보다 내면을 삼가 참되게 하려 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잠31:30 하였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 고리 같으니라.’잠11:22 하셨습니다.

2. 잘 듣습니다.

1)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합니다.

약1:19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잠18:2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남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기 좋아한다. 현대인의 성격)

2) 자세히 듣습니다.

사28:23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3) 배우려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사50:4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공동번역)

4) 의도 형편 심정을 알아줍니다.

잠20:5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내느니라.

잠29:7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5) 이해 공감합니다. 통찰 분별합니다.

왕상3:9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중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6) 이해하기 어려운 말

창37:5~11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칭하건대 내가 곧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곧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눅2:15~19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눅2:46~51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3. 때가 된 후에 말합니다.

잠15:23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18:13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잠25:11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

잠25:20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잠27:14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잠29:20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요16:12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 처지와 역량을 헤아립니다. 내 감양에 어울리는지, 상대방이 이해수용 감당할 수 있겠는지 헤아립니다. 참조 : 196쪽 '상대가 감당할 수 있을 때'

2) 상대방과 그럴 만한 관계가 되기 전에는 논쟁이나 자기주장을 삼갑니다. 저항을 부르기 쉽고 심하면 욕을 당하게 됩니다.

관계의 깊이와 질을 헤아려 그에 맞게 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회사업에서 '때'의 핵심은 바로 '관계'입니다.

4. 말을 아깁니다.

잠10:19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14:23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¹⁾

잠17:27~28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전5:2~3, 7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1) 그렇다고 마땅히 할 말조차 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시39:1~2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다.

렘20: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5. 성내지 않습니다.

시37:8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잠12:16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14:29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15:18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16:32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19:11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25:15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마5: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엡4:26~27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약1:19~20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6. 강의와 상담

1)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고전2:4~5 내 말과 내 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2) 사랑으로

고전13:1~2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 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3)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은혜롭게

엡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골4:6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4) 권위 있게

사50:4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막1:22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5) 담대하게

엡6:19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6) 부드럽게

잠15:1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25:15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7) 깊이 생각하여 신중하게

잠15:28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 잠26:4~5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롬12:3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약3:1~2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8) 마음을 비우고, 주께 하듯

요6:60~66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시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고전2: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 경청하는 건 아닙니다. 경청한다고 다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알아듣는다고 다 동조하는 건 아닙니다. 동조한다고 다 그렇게 실천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그러했습니다.

꼼꼼히 읽어 주기 바라지만 대충 훑어봅니다. 깊이 새겨듣기 바라지만 대충 넘겨듣습니다. 거르고 재단하고 통폐합하여 한두 가지 지식이나 생각으로 줄이고 한두 마디 자기 말로 바꾸어 기억합니다.

이러므로 (말하는 내용과 방법을 성찰하되) 마음을 비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어 듣게 하신 사람이 있으리라 믿고 주께 하듯 말합니다.

요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골3: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강의나 상담할 때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마땅히 할 말을 주셔서 주의 뜻을 잘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무슨 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하게 해 주십시오.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말을 지혜롭게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해 주십시오. 희망과 용기를 북돋게 해 주십시오.

먼저 제 귀를 깨우쳐 배우게 해 주십시오. 듣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깨우쳐 주십시오. 좋은 관계와 역동 속에 원활히 소통하며 피차 배움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잘 배우게 해 주십시오.

힘 있고 담대하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말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 감사 존중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하게 해 주십시오.

질문에 답할 때와 토론할 때 듣는 마음, 분별하는 지혜, 공감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잘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그 의도를 알아주고 그 심정을 공감하게 해 주십시오.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대답할 것인지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잠26:4~5)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잠15:28) 경우에 합당한 말로 유순하게 대답하게 해 주십시오.(잠25:11, 잠15:1)

제 분량과 한계를 알고 마땅히 대답할 그 이상의 생각을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롬12:3) 온갖 일에 전문가인 양 대답하거나 선생인 양 조언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 입에 재갈을 물려 제어해 주십시오.(약3:1~3) 제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십시오.(시141:3)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마6:9~10)

7. 축복

1) 취업한 사람을 위한 축복

창39: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창39:23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대상4:10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기관과 동료와 이용자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유혹과 환난을 벗어나 허물과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2) 먼 길 떠나는 사람을 위한 축복

창28: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¹⁾

시32:8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1) 창24:7 (하나님 여호와)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창24:40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사48:17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그와 함께 계셔서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며 평안히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마십시오.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주목하여 훈계해 주십시오.

그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길을 지도하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앞서 행하시며 예비하시고, 동행하시며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3)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축복

민6:24~26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고후13: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¹⁾

요삼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 주십시오. 두루 베풀고 섬기며 덕을 세우고 화평케 하고 복을 끼치되 유혹과 환난을 벗어나 허물과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1) 바울은 매 편지의 처음과 끝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도는 고후13:13)

8. 비판 책망

1) 비판받지 않으려면

마7:1~2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눅6:37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2) 내가 누구이기에

롬14:3~4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롬14:10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약4:11~12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3) 죄 없는 자가 먼저

요8:3~9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서 잡혔나이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름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하28:10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1)

마7:3~4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2)

1) 유다 왕 아하스가 범죄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에게 넘기셨더니,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 동족 유다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고 무려 이십만 명이나 사로잡고 재물을 많이 약탈하여 가져갔습니다. 이에 선지자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했습니다.

2) 대조, 갈6: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4) 그들의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눅13:1~5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벨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눅18:9~14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고전10:11~12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5) 상대가 감당할 수 있을지 헤아립니다.

요16:12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¹⁾

고전3:1~2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후2:6~7 이러한 사람²⁾은 많은 사람에게서 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미 많은 사람한테서 상당한 책망을 받았다면, 나까지 가세하여 몰아붙일 일이 아닙니다. 그가 감당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6)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잠12:18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1) 집회서 20:1 때에 맞지 않는 책망이 있고 현명함을 드러내 주는 침묵이 있다.

2) 5절에 ‘근심하게 한 자’라 했고 관주는 고전5:1~2와 비교하라 합니다. 고전5:1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7) 책망 받을 때

- ① 우선 마음을 열고 끝까지 경청합니다. 곤장 변명하거나 반박하려 들지 않습니다.
- ②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 ③ 잘못이 있든 없든 그 말로써 나를 다듬고 보완합니다.

잠13:10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충고)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19:20 너는 권고(충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잠27:9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잠29:1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다윗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사실을 덮으려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소환하여 아내와 동침하게 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맹렬한 전투에 앞세워 죽게 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하시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

충고해 주는 사람이라고 다 믿지 말고

집회서 37:7~15 모든 조언자들은 자기 충고가 옳다고 하지만 간혹 사욕을 채우려고 조언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충고해 주는 사람이라고 다 믿지 말고 먼저 그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보아라. 그의 조언은 네가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은 ‘지당합니다.’ 하고 말하고는 반대편에서 네가 잘못되기를 기다린다.

너에게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과는 상의하지 말고, 너를 시기하는 자에게 네 계획을 말하지 말아라. 여자와 그 여자의 경쟁자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고, 비겁한 자와 전쟁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며, 상인과 장사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고, 사는 사람과 팔 값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며, 인색한 사람과 사례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고, 냉혹한 사람과 친절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며, 게으른 사람과 일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고, 임시고용인과 일의 완성에 대하여 상의하지 말며, 부실한 종과 큰일에 관하여 상의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에게서 무슨 좋은 충고가 나오겠느냐?

너는 언제든지 경건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되는 사람, 네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네가 실패했을 때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그리고 네 마음의 충고를 따라라. 그보다 더 믿음직한 조언자는 없다. 높은 탑에서 망보는 일곱 경비원보다도 자기 자신의 마음이 흔히 더 좋은 경고를 해준다.

이 모든 것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청하여라. 그분은 너를 진실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공동번역

9. 험담

레19:16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잠10:18 증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잠17:9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둬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18:8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잠18:17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잠30:10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전10:20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남의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겠습니다. 맞장구치지도 말고 옮기지도 말아야겠습니다. 이야기가 돌고 돌아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되면 그가 나를 미워할 것이고 나 스스로 부끄러울 겁니다.

다만 사회사업에서는 험담 같은 푸념이나 하소연이라도 들어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험담하지 말라고 딱 잘라 버리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상처 받은 마음을 각박하게 내치는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10. 비밀

잠11:13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20:19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잠25:9~10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¹⁾

미7:5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1) 집회서 8:17~18 어리석은 자와 털어놓고 의논하지 말아라. 그는 비밀을 지킬 줄 모른다. 비밀에 속할 일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하지 말아라. 그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 알 수 없다.

집회서 22:22 친구와 다투었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나 모욕과 멸시와 비밀 폭로와 배신행위, 이런 것들은 친구를 영영 잃게 한다.

집회서 27:16~17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신용을 잃고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 없다. 친구를 사랑하고 신의를 지켜라. 그러나 만일 그의 비밀을 누설했거든 그를 따라다니지 말아라.

집회서 27:21 상처는 봉대로 감을 수 있고 험담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비밀을 누설했을 때에는 희망이 없다.

집회서 41:26 네가 듣는 말을 남에게 옮기며 수다를 떨었을 때와 비밀을 누설했을 때에 수치심을 가져라.

11. 의혹, 소문

출23:1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¹⁾

요7:51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²⁾

행5:34~39 (대제사장과 공회가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사백 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꺾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1) 집회서 19:7~8 남의 말을 옮기지 말아라. 그러면 해를 입지 않으리라. 친구에게든 원수에게든 남의 말을 옮기지 말아라. 입을 다무는 것이 죄가 되기 전에는 들은 말을 누설하지 말아라.

2)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율법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 받은 자들이다.” 하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회서 11:7 알아보지도 않고 남을 비난하지 말아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질책하여라.

집회서 19:15~17 네 친구가 무고하게 중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 가서 직접 물어보아라. 사람은 가끔 악의없이 말실수를 하는 수가 있다. 말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네 이웃을 비난하기 전에 직접 만나서 알아보아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에 맡겨라.

12. 원망, 불평

시37:1,7~8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행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잠24:19~20 너는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행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전7:10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고전10:10~11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¹⁾

약5:9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1) 민수기 13~14장의 이야기입니다. 열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자,

민14:1~3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13. 약속

1) 약속, 계획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참으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내일은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저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곤 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러므로 약속하기를 꺼립니다. 계획은 하더라도 ‘주의 뜻이면, 주께 서 허락하시면, 하리라.’ 합니다.

① 내일 일을 모릅니다.

잠27:1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전7:14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8:7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약4:13~16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②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마26:33~34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③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대상28:2~3 나는 여호와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시127: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잠16:1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행16:6~10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2) 서원 서약

민30:2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23:21~23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삿11:30~31,34 (입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독녀라.

삼상1:11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젓 떤 후에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잠20:25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주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덧이 되느니라.

전5:4~6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욕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3) 맹세

마5:33~37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약5:12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4) 보증

잠6:1~5 내 아들이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이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잠11:15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잠17:18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잠22:26~27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값을 것이 네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14. 기타

잠4:24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 하라.

잠26:18~19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농담도 못하냐? 새번역)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고전14:2~5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엡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엡5:3~4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딤후2:16~17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내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약3:9~10 (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5. 말실수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약3: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약3:7~8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런데 말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잠18:20~21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마12:36~3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 어찌하면 좋을까요?

시141:3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잠30:7~8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재원

1. 하나님

창22:6~14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 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사회사업에 쓸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민18:20~21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신10:9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애3:24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마6:32~33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후9:8~10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흠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내가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아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회사업을 맡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분깃, 우리의 기업이 되시어 사회사업에 쓸 것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심는 일, 사회사업에 힘쓸 따름입니다.

2. 재원의 정당성

잠28:8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¹⁾

사행산업이나 담배사업 같은 데서 번 돈을 사회사업에 갖다 쓰자, 갖다 써도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곳에 ‘지원 신청’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1) 거부

신23:18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을 때, 엘람 왕이 소돔의 재물을 빼앗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사병을 이끌고 쫓아가서 재물과 사람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개선할 때에 소돔 왕이 영접하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하니 거절했습니다.

1) 잠13:22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썩어느니라.

전2:26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23:17~18 칠십 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 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창14:22~23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¹⁾

받아서 좋은 데 쓰지 왜 거절했을까요?²⁾

2) 수용

어느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여인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여인이 눈물로 당신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행동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자 몇 사람이 보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 사람의 정신과 몸과 관계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가족이 피눈물을 쏟게 하고 아이들을 울게 하고 더러는 폐인이나 장애인 되게 하는 일로 써 돈을 번 기업이 ‘우리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아픈 사람을 이렇게 많이 도왔다.’ ‘우리가 사회복지사들로 이렇게 많은 복지사업을 하게 했다.’ 할까 하여 그쪽 돈은 한 푼도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2) 창13:13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잠23:6~7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3) 거부? 수용?

잠28:8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다시 읽으니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늘림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뜻이 와 닿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렘17:11’ 함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저축한 재산은 사회사업 기금이 된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사회사업가가 가져다 또는 받아서 쓰이 당연하거나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돈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번 돈인지 캐묻지는 않겠지만 알면서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1) 당사자와 지역사회 앞에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면, 준다 해도 선뜻 받지 못하겠거니와, 신청하면서까지 다투어 받아 오려는 일은 더욱 못하겠습니니다.

1) 고전10:25~28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4) 기준

‘이런 돈은 사회사업에 쓰면 안 되는가? 나쁜가? 죄가 되는가?’

이는 소극적 기준입니다.

‘어느 편이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더 유익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가?’

이런 적극적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¹⁾

참조 : 95쪽 ‘기준’

1) 이런 돈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

① 원론적으로는,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면 사행산업이나 담배사업의 수익금까지 끌어들이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② 소극적으로는, 당사자와 지역사회 앞에 버젓하게 보일 수 없기 때문이고, 공짜 지원이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부작용을 낳기 때문입니다.

③ 적극적으로는,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자연력으로써 하는 편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3. 물질관

1) 족한 줄로 압니다.

잠30:15~16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눅3:14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족한 줄로 알기에는 가진 것이 너무 없고 소득이 너무 적은 사람도 있으니 일반화하여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의 급료가 족한 줄로 알기에는 너무 적다고 할 만한 정도일까요?

히13: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¹⁾

1) 롬8:38~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6:31~32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롬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빌4:11~12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딤후6:6~8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¹⁾

1) 욕이 모든 소유물과 종과 자녀를 잃었을 때

욕1:21 내가 모테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 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2) 마음 두지 않습니다.

시62:10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잠23:4~5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잠27:24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
으랴?

잠30:8~9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
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
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딤후6:17~18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
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
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마음을 물질에 두지 않고 물질의 원천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
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둥니다. 물질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합3:17~18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
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3) 역설

시49:10~11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 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
로다. 그러나 그들(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¹⁾

시49:16~17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
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으매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잠13:8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험
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²⁾

전5:10~13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
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
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
엇이 유익하라.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
록 소유하는 것이라.³⁾

1) 자기 집에 살든 남의 집에 살든, 사람은 누구나 잠시 세 들어 살다 가는 게
아닐까요? 집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지라도 그 역시 잠시 살다 갈 뿐입니
다. 어떤 사람은 집을 위하느라 잘 누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이 있
어 자유롭지 못합니다.

2) 잠15:16~17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
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
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17:1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
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전4:6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전5:15~17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전6:1~2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마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19:21~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딤후6:9~10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3) 소유하기보다 향유하고 공유하는 삶이 진정 부요한 삶이 아닐까 합니다.

4) 청부

겔16:49~50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¹⁾

학1:4,9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²⁾

약5:1~5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는 사회사업가에게 부는, 그 청탁에 상관 없이, 편치 않습니다.

1) 눅16:19~21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2) 암5:11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복

1. 복, 복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함은 화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함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함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면 불행도 복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 행복도 재앙입니다.

도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참 복지입니다.

도와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 복지입니다.

시16:2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73:28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누리며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헛될 뿐입니다.

2. 행복

하필 행복입니까?

뜻을 좇을 따름입니다.

때로 넘어지고 부서지고, 오해 비난 질시 핍박 가난 외로움에 고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설령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다만 뜻을 좇아 행할 일입니다.

뜻을 좇아 행하면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 되어도 괜찮습니다.

행복해도 좋고 불행해도 좋습니다.

다만 뜻을 좇을 따름입니다.

복지 영성

1. 영성

- 1) 영성은 영적 성품입니다.
- 2) 기독교 영성은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영성입니다.

2. 복지 영성

- 1) 복지 영성은 사회사업에 필요한 영성입니다. 사회사업하면서 다듬어지는 영성이기도 합니다.
- 2) 기독교 복지 영성은 기독교 사회사업에 필요한 영성입니다. 사회사업하면서 다듬어지는 기독교 영성이기도 합니다.

복지 영성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이를테면 동기 편에서는 정의 추구, 방법 편에서는 신뢰와 감사, 자세 편에서는 성실과 겸손, 고난 편에서는 인내와 용기, 물질 편에서는 지족과 청빈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다 사회사업에 필요한 영성이고 또한 사회사업하면서 다듬어지는 영성입니다.

사회사업가로서 이 모든 것 위에 더욱 깊어지기 원하는 영성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특히 약자를 귀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이 영성이 지식과 의식을 넘어 자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